

“안방으로 갈까 응접실로 갈까?”

열린 공간 ‘안방’ 이야기

김상우 / YTN 경제부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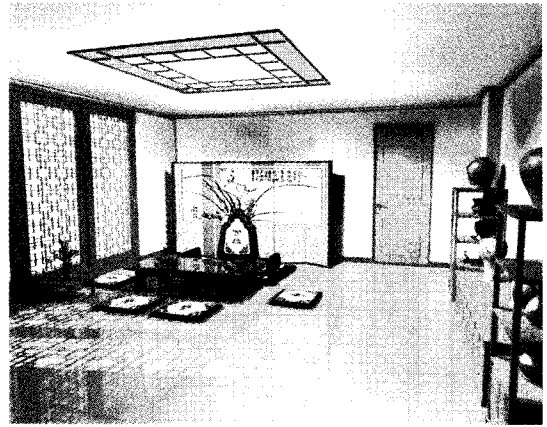
제 어렸을 적 기억으로만 따져보면 우리의 전통적인 한국식 손님 접대문화는 ‘안방 문화’라고 여겨집니다. 대청마루가 있어도 대개는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안방으로 손님을 모시고 그곳에서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응접실 문화’가 생기기 했지만, 어쨌든 누군가에게 침실이 있는 안방을 보여주는 것,

또는 자신이 가장 편안히 쉬거나 놀 수 있는 공간을 보여주는 것, 설사 그 사람과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더라도 이미 상대방과 그 이상의 친분과 신뢰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꾸로 남의 집 안방을 불쑥 쳐들어간다거나 안방주인이 싫어하는데도 자꾸 남의 집 안방을 드나들면 그것은 불청객이겠지요.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겠지만, 한국사회에서 기자로서 우리는 특권(?) 중의 하나를 조금 거짓말을 보태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출입처가 있는 기자는 해당 부처 장·차관이나 고위직 공무원의 안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그들 고위직 공무원이 있는 사무실 즉 안방을 찾는 것이지요. 고위직 공무원이라면 잠깐이라도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이런 취재관행은 아마도 우리의 안방식 손님 문화에 따른 취재 관행일 것입니다.

열린 공간 ‘안방’이 줄어들고 있다 | 그러나 요즘 취재기자와 취재원과의 이런 관행 즉 안방 보여주기 관행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른바 브리핑룸과 브리핑 제도라는 서양식 시스템이 도입돼 부처 사무실 방문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이제는 더 이상 ‘언론과 안방 접촉 문화’는 없다, ‘안방식 취재문화’는 없다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 드린대로 때로는 불청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의 전통적인 안방식 손님 문화는
 ‘열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무릎을 맞대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일면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취재원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니까 사무실을 찾지 않는 경
 우가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안방식 취재문
 화’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론 본연의 감시 기능을 잃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는 것입니다. 접근성에 대
 한 제한. 충실한 설명 없는 일방적 브리핑, 보도자
 료 배포에 그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안방에
 서 탈피해 공개된 응접실, 일종의 ‘광장’으로 나오
 자는 취지인데, 광장을 운영할 만한 여건이 제대로
 돼 있는지 반문해 봅니다.

우리의 안방식 손님문화 되찾아야 | 경우는
 좀 다르지만 좀 오래된 얘기 하나를 하면, 지난해
 모 부처 고위직은 그 직에 취임하자마자 접견실을
 따로 뒀습니다. 집무실은 어떤 면에서는 부처내 안
 방과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 안방을 똑 나
 뉘서 따로 접견실을 둔 것입니다. 의전이 중요하
 는 이유였지만 접견실을 두면 안방으로의 자연스런
 진입은 차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대부

분 안방과 같은 집무실에서 외부인을 만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당사자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지나친
 비약 하나를 해봅니다. 특정 사건과 직접 연루된 사
 건은 전혀 아니지만 접견실을 따로 만든 그 분은 퇴
 임 이후 돈 수수 문제로 검찰에 소환되는 불명예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언론과의 관계를 ‘팽팽한 긴장관계’로 설
 정해 놓고 있습니다. 서로가 견제하고 감시까지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나 걸만 그럴 뿐 상대
 방 속내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깃들어 있다
 면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올 것입니다.

서로 무릎을 맞대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없어질수록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이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서양을 흉내낸 어설픈 ‘응접실식 문화’
 즉 허울만 광장인 공간보다는 ‘안방식 문화’가 당
 분간 더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의 안방식 손님 문화는 그런 면에서 ‘열린 공간’
 이라고 생각합니다. PPFK